

미래에셋자산운용, 초등학생 대상 '경제 캠프'

4차 산업혁명 주제로 경제 학습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국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제16회 우리아이 경제박사 캠프'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겨울 방학 캠프는 지난 4~5일 이틀간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텔에서 열렸다.

캠프 참가자는 미래에셋 우리아이펀드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교육 동영상과 보고 소감문을 쓴 초등학생 가운데 선발했다.

캠프 참가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다양한 게임과 체험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경제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의 모습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실시간으로 올려 학부모 안심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밖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상하이와 선전에서 진행되는 국내 대표 해외연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아이 경제박사 캠프'에 참여한 초등학생과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수 프로그램인 ▲우리아이글로벌리더대상정, 전국 초등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우리 아이 스쿨투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우리아이 경제교실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명재 미래에셋자산운용 WM마케팅부

문 부문장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경제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불법사금융 주의보



기지 수첩

김 유 진
(파이낸스&마켓부)

P2P금융 법제화, 서민금융상품 확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지난해 정부가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2금융권이 다시 다난한 1년을 보냈다.

덕분에 생존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 아니 정부가 내놓은 서민상품의 대상이 되는 저신용자들은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아졌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이같은 혜택이 초저신용자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몰아내는 이면 또한 존재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최근 몇년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대부업체가 위축됐다. 이에 따라 제도권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거절하고 급기야 문을 닫으면서 초저신용자가 어쩔 수 없이 불법 사금융으로 손을 뻗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초저신용자에게 왜 불법 대출을 받았냐고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대부분의 대답은 "방법이 없었다" 혹은 "다른 방법을 몰랐다"가 주를

이룬다. 적어도 법의 제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금융당국의 법이 초저신용자들의 수많은 변수들을 다 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이 위축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어쩔 수 없이 손을 뻗는 초저신용자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진짜 포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선다.

채무자들에게 빛을 탐강해 주고 경제 활동을 지속하게 해주는 정부 산하 기관들조차도 불법 사금융까지는 포용해주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한계선에서 있는 초저신용자에게는 뒤에서 '그선을 넘지 말라'며 옷자락을 붙들어 주는 포용이 절실할 것이다.

정부와 수많은 금융인이 '포용 금융'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서민들이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계산적으로 가능한 수준 안에서 빛을 갚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는 초저신용자들이 늘어나는 위기라고 한다. 진짜 포용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할 때 다. /ujin6326@metroseoul.co.kr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아카데미 3기' 美 현장학습

유엔 등 국제기구 방문해 직접 소통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3기가 6일 미국 현장학습을 떠났다

이번 현장학습은 오는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미국 뉴욕과 워싱턴DC에서 유엔본부와 유엔아동기금, 유엔개발계획 등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는 정몽구 재단

이 2017년부터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과 협력해 만든 지원 프로그램이다. 국제기구와 국제 NGO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3기는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오준 이사장과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 임형준 유엔 세계식량기구 한국사무소장 등 국내외 최고 강사진을 초빙했다. 미국 등 국제기구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현

장학습과 이론을 잘 버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담당자와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학생들에 호응을 받고 있다. 일부 학생은 현장 담당자에 직접 인턴 지원 권유를 받기도 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1기(25명)와 2기(30명)에 이어 3기도 30명을 선발했으며, 이중 17명을 유엔사막화방지협약과 서아프리카 지역 유엔사무소 등 국제기구에 진출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재용 기자 juk@

오늘의 운세

- 쥐** 36년생 남을 배려하면 내게도 득이 된다. 48년생 적당한 고난은 진취적인 삶을 가져온다. 60년생 지식의 허물은 내가 덮어야 한다. 72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양띠의 도움으로 거래가 성사, 84년생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린다.
- 소** 37년생 자식과의 금전거래는 하지 마라. 49년생 병도 약도 다 내가 할 땀. 61년생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아도 만족을 모른다. 73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쁜 마음으로. 85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 호랑이** 38년생 오늘 못하면 내일이 있으니 조금씩 하지 마라. 50년생 굳은살이 생겨서 웬만해서는 아프지 않다. 62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오늘은 박찬 하루. 74년생 망한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무슨 소용, 86년생 공부하라.
- 토끼** 39년생 얼룩이 발견되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 51년생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 63년생 신규투자는 신중하게. 75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마음이 불편하고 서글프다. 87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면 마음만 다친다.
- 말** 40년생 오늘날은 오늘 처리해야 내일이 한가하다. 52년생 나이는 공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나이 값을 해라. 64년생 다툼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 76년생 말 잘하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을 선택. 88년생 안전을 살피라.
- 뱀** 41년생 용기가 역사를 이끈다. 53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지천이니 내 마음도 봄. 65년생 일이 하기 싫으니 변명만 보인다. 77년생 뜻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으니 마음을 비워라. 89년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 말** 42년생 앞면 이가 저절로 빠진다. 54년생 고민을 하는 사이 기회는 날아간다. 66년생 가정의 화목이 항상 우선. 78년생 당신의 인생이니 남의 눈치 보지 마라. 90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도끼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일 것이다.
- 양** 43년생 실패한 거사는 돌아보지 마라. 55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67년생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79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91년생 꿀을 얻으려면 먼저 벌통을 손질해야.
- 원숭이** 44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 자신감을 가져라. 56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마라. 68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80년생 운이 펼쳐지니 무슨 일든 시작. 92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단절은 신중하게.
- 닭** 45년생 먼저 믿어야 상대도 설득할 수 있음을 명심. 57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9년생 모두 좋을 수는 없으니 하나는 양보. 81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을 온다. 93년생 임시방편으로 한 일이 좋은 결과.
- 개** 46년생 신선한 먹거리를 선물 받는다. 58년생 자식에게는 알고도 속고 모르고 속는다. 70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발생. 82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하지 마라. 94년생 이성을 만나기에 마음의 준비를.
- 돼지** 47년생 방만한 태도가 지갑을 비게 한다. 59년생 큰 산(山)도 작은 흙덩어리가 모여 이룬다. 71년생 경관은 수려하나 내용은 별로 없다. 83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나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는다. 95년생 인생 길에는 항상 순서가 있다.



김상회의 四季 공짜는 복덕을 까먹는다

예측하는 데는 다양한 측면으로 비춰볼 수가 있다. 그만큼 사람의 인생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보면 단순히 보이지만 실은 어느 때 그러한 행동이 나온다. 다양한 경험들이 각자의 무의식 속에 축적이 되고 그 식(識)은 잠재성향으로 있다가 어떤 상황을 부딪칠 때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색한 사람은 인색한 대로 자신의 무의식적인 경험 체계가 밀바탕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어느 여인은 주변에서 보자면 매우 부러운 사주일 수도 있다. 공무원 보조원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한 중간 관리자급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저렇게 부동산 테크를 하여 집도 서너 채다. 그녀는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하는 와중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역적 정신까지는 좋았다. 인색한 데다 유달리 공짜를 좋아하였다. 공짜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였는데 문제는 이를 지나쳐 염치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직장 사람들도부터도 평이 좋지 않음은 물론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들로부터도 따를 당하고 있다. 직장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논치를 다 꿰고 있었다. 겉으로 표현은 않는다. 다들 그녀 주변과의 유대관계가 틀어진 것에 대하여도 응당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형제가 많은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하여 갖은 고생을 했다. 팍팍한 살림을 끌어가느라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는 어머니가 내뱉는 폭언 속에서 자랐다. 그러다 보니 나름 눈치껏 행동하면서 살아나가는 요령이 의식, 무의식적으로 축적이 된 것이다. 그러니 알뜰함이 지나쳐 염치를 무릅쓰는 일이 일상이 됐다. 이는 성격으로 고착이 된 것이다. 공짜는 복덕을 까먹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추하게 만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2	4			9	3
	4	6		3	7	
7	9		1			
	5		4		2	
			7		1	5
		3	8		1	6
1	5			9	3	
	7					

		8				2 4
	2			3 5		9
				6 3		
		6	4			3 7
			5	7		2 6
					6	7 2
8	2			5		6
4				2	9	1

스도쿠 정답

6	1	5	7	8	9	2	4	3
2	8	9	6	3	4	5	7	1
7	4	9	1	5	8	6	2	3
5	6	1	2	3	4	8	9	7
3	2	8	9	7	6	1	5	4
9	7	8	1	5	6	2	4	3
1	5	2	4	9	7	8	6	3
8	9	6	3	4	5	7	1	2
4	3	7	5	6	1	2	8	9
8	5	1	6	2	4	9	7	3
3	9	4	2	1	7	8	6	5
2	6	8	9	7	5	1	3	4
9	1	2	8	6	3	5	4	7
1	3	5	2	1	7	9	6	8
6	8	7	4	9	5	1	2	3
1	6	8	5	2	9	7	3	4
7	2	4	1	6	8	9	5	3
5	9	1	7	8	2	6	1	4

문제 제공 = **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5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62호